

#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회참여와 성별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원서진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of Older Adults: The Role of Social Participation and Gender Difference

Seojin Won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배제-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중집단분석을 이용하여 사회적 배제-사회참여-우울의 관계가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6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남성 1,925명과 여성 2,653명을 대상으로 2차자료 분석하였다. 사회적 배제 요인 중 근로, 건강, 주거 배제가 남성 노인의 우울을 증가시켰으며, 여성 노인은 근로, 건강, 주거와 더불어 교육에서의 배제도 우울감을 증가시켰다. 남성 노인은 종교, 친목, 여가, 동창회모임의 참가율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졌으며, 여성 노인은 종교모임과 여가활동의 참석빈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했다.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모델에서 매개효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다중집단분석결과 남성과 여성 노인의 모델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우울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 배제, 우울, 노인, 사회참여, 성별차이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on of older adults. In addition, it is to addres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gender differences on social exclusion-social participation-depression relationship. The researcher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the 6<sup>th</sup> wave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The final sample included 1,925 male and 2,653 female older adul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excluded from work, health, and housing increased depression of male older adults. In the female model, excluded from education also found to be a significant factor predicting depression. Different mediating relationships existed between male and female older adults model and gender differences were also revealed. Based on the findings, the researcher discussed social work implications.

**Key Words** : Social exclusion, Depression, Older adults, Social participation, Gender difference

##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2018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1]. 이러한 급진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야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울과 같은 노인의 정신건강문제는 노인자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노년층의 우울 증가 비율이 높게 나타날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자살률도 OECD 국가들 평균은 18.8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8.6명으로 가장 높아, 노인 우울은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2].

노인 우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고[3-5], 나이가 많고[4], 배우자가 없고[4, 5], 학력수준이 낮고[6, 8],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5, 6, 8], 남성이며, 나이가 어리고, 다른 가족과 동거하며, 학력수준이 높고, 건강한 노인에 비해 우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거주지역 역시 우울에 영향을 주었는데, 거주지역은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노인이 우울감을 적게 느끼는 연구[4]와 농어촌 노인이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는 연구가 혼재하고 있다[3]. 또한 경제적 요인으로는 일을 하지 않고[2, 5-8], 소득과 자산이 적고[6, 8], 경제계층이 낮다고 느끼는 노인이[2, 4], 일을 하고, 소득과 자산이 많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을 더 느꼈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 많아 활발하게 여가사회활동을 하고 친한 사람들과 만남을 자주 가지는 노인들이 지인과의 만남횟수가 적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 9].

이렇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최근 사회적 배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배제는 장애, 성별, 연령, 계층 등에 따른 다양한 소외계층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불평등과 불이익을 의미한다[10, 11]. 이는 단순히 근로여부나 소득에 따른 경제적 빈곤의 측정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10-13].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해외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적 배제 요인으로 물질적 복지, 건강, 교육, 소득 및

노동시장의 참여, 실업, 기대수명, 주거, 빈곤,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10-16]. 국내의 주요 논문들에서는 고용, 소득, 실업과 같은 경제적 배제, 주거배제, 건강배제, 교육배제, 사회참여에서의 배제 등을 사회적 배제로 정의하고 있다[17-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한 근로, 소득, 건강, 주거, 교육의 5가지 요소를 사회적 배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배제와 노인 우울의 연관성을 파악한 연구들을 보면, 사회적 배제가 농촌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거나[21], 중장년층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 자살의 관계를 분석하거나[22], 취업활동을 매개로한 사회적 배제와 노인 우울을 연구한 논문[23] 등 다수가 존재한다. 이 논문들은 성별[21], 건강상태[21], 연령[22, 24], 혼인상태[22], 학력[22], 소득수준[23]과 같은 인구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1-24]. 또한, 사회적 배제와 노인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완충효과를 분석한 논문이나[24], 사회적 배제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사회참여와 비슷한 의미인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논문[25]에서는,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 사회적 연결망이 노인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 논문은 사회적 배제요인을 하나의 변수로 측정하여 각각의 배제요인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고[24], 다양한 모임의 참석에 따른 사회적 배제와 우울의 관계 분석은 포함하지 않았다[24, 25].

노인 우울에 미치는 성별의 효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왔다[3-5, 21]. 일반적으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우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와 해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런데, 사회적 배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별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으며, 사회적 배제-사회참여-우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배제가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에게서 사회적 배제-사회참여-우울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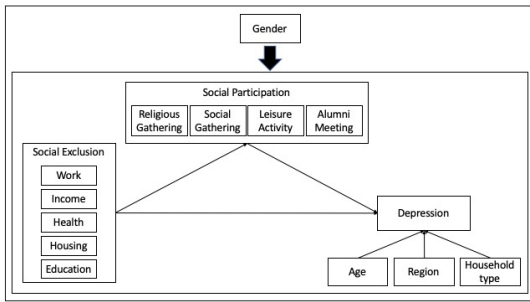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6차년도 데이터로 2차자료 분석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에 만45세 이상인 대한민국 거주자(제주도 제외) 10,254명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작으로 2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 조사된 6차년도 데이터는 총 9,913명의 조사대상자 중 7,893명을 조사하여 79.6%의 응답률을 보인다[26]. 이번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는 이들 중 65세 이상 노인 4,582명으로 한정하였으며, 남성 1,925명, 여성 2,653명이었다.

### 2.2 측정변수

종속변수인 우울은 CES-D-10을 활용하였다. 대상자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마음이 슬펐습니까?”와 같은 문항에 대해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1),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2),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4)으로 대답하였으며, 이를 합산한 뒤, 1번과 2번 항목은 0, 3번과 4번 항목은 1로 재코딩하여 합산한 변수를 이용하여 점수분포는 0에서 10이며, 수치가 클수록 우울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남성 노인의 신뢰도는  $\alpha=.837$ , 여성 노인의 신뢰도는  $\alpha=.844$ 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배제는 근로, 소득, 건강, 주거, 교육의 5가지 변수를 포함하였다. 근로는 현재 근로여부를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근로하는 노인을 0, 근로하지 않는 노인을 1로 코딩하였고, 소득은 연간 가구소득을 기준으

로 소득이 있는 노인을 0, 소득이 없는 노인을 1로 재코딩하였다. 건강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우 좋음, 좋음, 보통으로 응답한 노인을 0으로,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노인을 1로 재코딩하였다. 주거는 자가거주자를 0, 전세, 월세 등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노인을 1로 재코딩하였다. 교육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을 0,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을 1로 재코딩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매개변수인 사회참여는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활동, 동창회모임의 참석 빈도로 측정하였다. 참석빈도는 각각의 모임에 대해 1(거의 참여하지 않음), 2(일 년에 한 두 번 정도)에서 9(일주일에 두 세 번), 10(거의 매일 참여하고 있음)의 10점 척도로 재코딩하여 수치가 클수록 참석빈도가 잦은 것을 의미한다.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으며, 나이는 연속변수를 투입하였다. 거주지역은 대도시를 1, 중소도시를 2, 농어촌을 3으로 코딩하였다. 가구형태는 동거가족수를 묻는 변수를 활용하여 가족수가 1인 독거가구(0)와 2인 이상인 비독거가구(1)로 재코딩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 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TATA 15.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는 이분변수의 경우 퍼센트를,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성별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카이제곱과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는 카이제곱 및 Root Mean Square of Error of Approximation(RMSEA), Comparative Fit Index(CFI), 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RMSEA와 SRMR은 0.5 이하, CFI는 .90 이상을 기준으로 적합도를 판단하였다[27]. 이후 각 변수들 간의 경로에 대해 표준화된 추정값을 구하고,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효과분해를 통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구하였다. 이 때 간접효과는 두 변수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성별차이 분석은 자유모델과 제약모델의 카이제곱 및 모형적합도의 차이를 통해 알아보았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우울정도는 남성 3.00(SD=2.79), 여성 3.58(SD=2.8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사회적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소득배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참여 요인 중 종교모임의 참여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았으나(1.86 vs. 2.44,  $p<.001$ ), 친목모임(4.77 vs. 4.30,  $p<.001$ ), 여가활동(1.36 vs. 1.33,  $p=Not\ Significant$ ), 동창회모임(1.90 vs. 1.23,  $p<.001$ )의 참여도는 남성이 더 높았다.

평균연령은 남성이 75.14세(SD=6.94), 여성이 76.24세(SD=7.49)로 여성이 조금 더 높았다( $p<.001$ ). 남성 노인의 거주지역 분포는 대도시 40.5%, 중소도시 30.7%, 농어촌 28.8%였으며, 여성 노인의 분포는 대도시 39.7%, 중소도시 30.6%, 농어촌 29.7%로 남성 노인의 분포와 비슷했다( $p=Not\ Significant$ ). 가구형태는 남성 독거노인이 17.1%, 여성독거노인이 20.2%로 여성 노인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Gender		$\chi^2/t$
	Male	Female	
Depression	3.00 (2.79)	3.58 (2.84)	-6.903***
Social Exclusion			
Work(Not working)	65.4%	84.5%	225.070***
Income(No income)	0.3%	0.7%	3.363
Health(Poor)	32.0%	42.1%	47.973***
Housing(Rented house)	13.5%	16.8%	9.363**
Education(Middle school and lower)	55.6%	86.4%	543.895***
Social Participation			
Religious gathering	1.86 (2.39)	2.44 (2.96)	-7.108***
Social gathering	4.77 (3.23)	4.30 (3.51)	4.593***
Leisure activity	1.36 (1.53)	1.33 (1.543)	.527
Alumni meeting	1.90 (2.00)	1.23 (1.11)	14.258***
Age	75.14 (6.94)	76.24 (7.49)	-5.049***
Region			
Metropolitan area	40.5%	39.7%	0.509
Mid-size city	30.7%	30.6%	
Rural area	28.8%	29.7%	
Household type			
Living alone	17.1%	20.2%	6.836**
Living with someone	82.9%	79.8%	

\* $p<.05$ , \*\* $p<.01$ , \*\*\* $p<.001$

의 독거비율이 남성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1$ ).

#### 3.2 구조방정식 결과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는 기준에 부합하여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chi^2(32)=149.70(p<.001)$ , RMSEA=.040, CFI=.933, SRMR=.018).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준화된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성 노인의 경우 사회적 배제요인 중 근로( $\beta=.140$ ,  $p<.001$ ), 건강( $\beta=.221$ ,  $p<.001$ ), 주거요인( $\beta=.051$ ,  $p<.05$ )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일을 하지 않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며, 세를 살고 있는 노인의 우울감이 높았다. 사회참여 요인들은 모두 남성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종교모임( $\beta=-.066$ ,  $p<.01$ ), 친목모임( $\beta=-.106$ ,  $p<.001$ ), 여가활동( $\beta=-.046$ ,  $p<.05$ ), 동창회모임( $\beta=-.047$ ,  $p<.05$ )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감소했다.

Table 2. Standardized coefficients of the SEM model

Paths		Male	Female
Depression (-)	Work	.140***	.114***
	Income	.003	.009
	Health	.221***	.312***
	Housing	.051*	.065***
	Education	.015	.042*
	Religious gathering	-.066**	-.046*
	Social gathering	-.106***	-.019
	Leisure activity	-.046*	-.043*
	Alumni meeting	-.047*	.022
	Age	.024	.032
Religious gathering (-)	Region	.005	-.002
	Household type	.004	-.002
	Work	.002	.032
	Income	.038	.038*
	Health	-.044	-.060**
Social gathering (-)	Housing	.050*	.091***
	Education	-.074**	-.114***
	Work	-.052*	.001
	Income	.010	.029
	Health	-.282***	-.248***
Leisure activity (-)	Housing	-.034	-.061**
	Education	-.005	-.007
	Work	.046*	.057**
	Income	-.014	.042*
	Health	-.066**	-.065**
Alumni meeting (-)	Housing	.002	-.022
	Education	-.116***	-.042*
	Work	-.042	-.012
	Income	-.003	-.015
	Health	-.125***	-.099***
Education	Housing	-.031	-.014
	Education	-.213***	-.185***

\* $p<.05$ , \*\* $p<.01$ , \*\*\* $p<.001$

여성 노인도 남성 노인과 마찬가지로 근로( $\beta=.114$ ,  $p<.001$ ), 건강( $\beta=.312$ ,  $p<.001$ ), 주거( $\beta=.065$ ,  $p<.001$ )에서의 배제가 우울을 증가시켰다. 또한 교육에서의 배제 역시 우울에 영향을 미쳐( $\beta=.042$ ,  $p<.05$ ),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여성 노인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다. 사회참여 요인에서는 종교모임( $\beta=-.046$ ,  $p<.05$ )과 여가활동( $\beta=-.043$ ,  $p<.05$ )의 참여빈도가 여성 노인의 우울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남성과 여성 노인 모형에서 연령, 거주지역, 가구형태는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구조방정식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에 대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3과 Table 4 및 Fig. 2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성 노인 모형에서는 건강배제-친목모임-우울, 건강배제-여가활동-우울, 건강배제-동창회모임-우울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남성 노인들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친목모임이나 여가활동, 동창회모임에 참석하는 빈도가 감소하고 이는 우울의 증가로 이어졌다. 여성 노인 모형에서는 근로배제-여가활동-우울의 경로가 유의하여, 남성과는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근로에서의 배제가 여가활동의 증가를 가져왔고, 여가활동의 증가는 우울의 감소로 이어졌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유모델의 모형적합도는  $\chi^2(32)=149.70(p<.001)$ , RMSEA=.040, CFI=.933, SRMR=.018였으나, 제약모델에서는  $\chi^2(64)=217.88(p<.001)$ , RMSEA=.032, CFI=.912, SRMR=.024였다. 카이제곱차이는 68.18( $p<.05$ )로 유의하여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모형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Total effec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s of male older adults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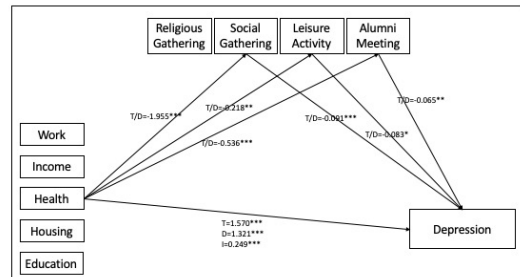
Paths	Total(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Health→Social gathering	-1.955*** (-1.955***)	-
Health→Leisure activity	-0.218** (-0.218**)	-
Health→Alumni meeting	-0.536*** (-0.536***)	-
Health→Depression	1.570*** (1.321***)	0.249***
Social gathering→Depression	-0.091*** (-0.091***)	-
Leisure activity→Depression	-0.083* (-0.083*)	-
Alumni meeting→Depression	-0.065** (-0.065**)	-

\* $p<.05$ , \*\* $p<.01$ , \*\*\* $p<.001$   
\*Only significant paths were shown.

Table 4. Total effec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s of female older adults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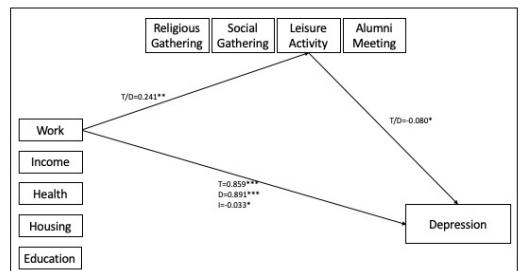
Paths	Total(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Work→Leisure activity	0.241*** (0.241**)	-
Work→Depression	0.859*** (0.891***)	-0.033*
Leisure activity→Depression	-0.080* (-0.080*)	-

\* $p<.05$ , \*\* $p<.01$ , \*\*\* $p<.001$   
\*Only significant paths were shown.



\* $p<.05$ , \*\* $p<.01$ , \*\*\* $p<.001$   
\*Only significant paths were shown.  
\*T=Total effect, D=Direct effect, I=Indirect effect

Fig. 2. Male older adults model



\* $p<.05$ , \*\* $p<.01$ , \*\*\* $p<.001$   
\*Only significant paths were shown.  
\*T=Total effect, D=Direct effect, I=Indirect effect

Fig. 3. Female older adults model

## 4. 결론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성별에 따라 사회적 배제-사회참여-우울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노인의 경우 근로, 건강, 주거에서의 배제가 우울에 영향을 주어, 일을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나쁘며, 자가에 살지 않는 노인의 우울감이 높았다. 또한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활동, 동창회모임의 참여빈도가 많은 남성 노인의 우울감이 사회참여를 적게 하는 노인에 비해 낮았다. 여성 노인의 경우 근로, 건강, 주거에서의 배제 뿐 아니라 교육에서의 배제 역시 우울감에 영향을 미쳐,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여성 노인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 보다 우울감이 높았다. 사회참여는 종교모임과 여가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여성 노인들의 우울감이 참여도가 낮은 노인들 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배제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17-24], 노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참여의 요인들 역시 우울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역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우울감이 사회활동이 적은 노인들에 비해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5].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 연령[4, 22, 24], 거주지역[3, 4], 가구형태[4, 5]는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회참여는 사회적 배제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남성노인모델에서는 건강에서의 배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참여 요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모델에서는 근로에서의 배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성 노인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의 악화로 인한 사회참여의 감소가 우울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성 노인은 근로에서의 배제가 여가활동을 증가시켰고, 활발한 여가활동 참여는 우울을 감소시켰다. 이렇듯 성별에 따라 사회적 배제의 경험과 사회참여의 빈도, 우울감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감소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과 여성 노인 모두 근로, 건강, 주거에서의 배제가 우울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고령자 취업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별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만 55세 혹은 만 60세 이상 중고령자들을 위한 취업알선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28]. 그러나 직종이 한정적이어서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직종개발 및 노인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취업알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기업과의 상호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노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지역사회 내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건강 및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용자가 많아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이를 통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정책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2016년부터 정부는 공공실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에 공급하여 노인들이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국가유공자나 독거노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29]. 그러나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이러한 공공실버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도 공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재정적인 한계가 도래할 수 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29].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증진시켜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노인여가시설을 활용하여 동아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여가문화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나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동아리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타 지역 동아리와의 연계활동을 지원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교모임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았고, 남성 노인은 친목모임이나 동창회모임을 여성 노인보다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 노인들이 본인의 기호에 맞는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

치는 영향 및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사회적 배제-사회참여-우울의 관계가 남성과 여성 노인에게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우울 감소 방안을 제안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차자료 분석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배제요인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참여 요인 역시 최근 지역사회마다 활성화되어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고 이러한 증감현상이 노인의 우울 감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는 후속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0). *2019 Statistics of Older Adults*. <http://kostat.go.kr>
- [2] S. Jung. (2019). The influence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income and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4(1), 115-139.
- [3] S. Kim, M. Kim & S. Kim. (2020). The effect of the rural elderly's health literacy on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5(1), 159-181.  
DOI : 10.21194/KJGSW.75.1.202003.159
- [4] K. Park, Y. Park & D. So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depressive symptom: A comparison between the rural and urb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 667-677.
- [5] J. Kim. (2019). Influential factors of social relation on the change in the depression level of elderly: Longitudinal analysis using a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7), 138-148.
- [6] J. Han.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older adults: The moderation of attitude toward working in later lif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4(3), 93-116. DOI : 10.21194/kjgs.74.3.201909.93
- [7] S. Yoon. (2016). The impact of employment on depression among Korean older adults: Gender differences i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3), 389-410.
- [8] J. C. Lim, K. H. Ju & B. W. Lim. (2012). Effects of work participation on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7, 29-50.
- [9] M. Park. (2018). Social connected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Korea: The moderating effect of community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3(3), 55-81.
- [10] H. Silver.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531-578.
- [11] A. O'Grady, P. Pleasence, N. J. Balmer, A. Buck & H. Genn. (2004). Disability, social exclusion and the consequential experience of justiciable problems. *Disability and Society*, 19(3), 259-271.
- [12] A. Atkinson, B. Cantillon, E. Marlier & B. Nolan. (2002). *Social Indicators: The EU and Social In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3] C. Howard, P. Kenway, G. Palmer & C. Street. (1998). *Monitor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bour's Inheritance*. York: York Publishing Services.
- [14] P. Edwards & J. Flatley. (1996). *The Capital Divided: Mapp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London*. London: London Research Centre.
- [15] T. Buchardt, J. Le Grand & D. Piachaud. (2002). Degree of exclusion: Developing a dynamic, multi-dimensional measure, In J. Hills, J. Le Grand, and D. Piachaud. (Eds.),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6] J. Bradshaw, J. Williams, R. Levitas, C. Pantazis, P. Townsend, D. Gordon & S. Middleton.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Paper Presented for the 26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Poland.
- [17] I. Song & S. Won. (2015).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poverty of people over 45 years old with disability: Comparison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7), 138-148.
- [18] S. Won, H. Kim & I. Song. (2016).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life satisfaction of seniors with disability: Comparison between young and old senio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8), 301-301.
- [19] N. H. Park & M. J. Choi. (2014). A study of multi-dimensionality and dynamics of social exclusion of the middle aged householders. *Journal of Social Science*, 25(2), 325-354.
- [20] Y. Shin, K. Kim, D. Yu & D. Kim. (2013). A theoretical research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social inclusion about the disabled: From social exclusion to inclu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5(3), 5-28.

- [21] M. Chae & J. Lee. (2018).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on of the rural elderly: With a focus on comparing single and couple household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9(4), 553-569.
- [22] S. Song. (2016). The relationship among the social exclusi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middle-aged individual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4(3), 64-92.
- [23] M. Y. Choi, S. E. Lee & H. S. Park. (2015). The effect of elderly's social exclusion on elderly depress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working.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69, 9-29.
- [24] B. Jeon & E. Choi. (2014).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on and buffering effect of social network: Focusing on employment status. *GRI Review*, 16(3), 237-274.
- [25] S. Park, H. Jeong & M. Cha. (2017).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3), 530-541.
- [26]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9).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2019 User's Guide*. Eumseong, Korea: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27] L. Hu & P. 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28]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2020). *Senior Job Service Center*.  
<http://gov.kr/portal/service/serviceinfo/000000277560>
- [29] S. Ha. (2017). *Aged society and housing policy for older adults*.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25>

원 서 진(Seo-Jin Won)

[정회원]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4년 5월 : 미국 Columbia Univ. School of Social Work(M.S.)
- 2009년 12월 : 미국 The Ohio State Univ. College of Social Work(Ph.D)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정신건강
- E-Mail : wseojin@dcu.ac.kr